

도시의 장소 -> 기억의 모자이크 -> 우리 시대의 내러티브

(2021 전진영스튜디오 졸업설계 주제 개요 / 문의 jychun@mju.ac.kr)

도시는 특정시대에 존재했던 공동체나 개인이 남긴 흔적의 더미이고 우리는 그 위에서 (혹은 안에서) 일상의 삶을 영위한다. 도시공간에 존재하는 수많은 내러티브(narrative)들은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한국동란 이후 우리의 도시들은 격변의 과정을 겪으며 도시공간에 남은 기억의 실마리들을 하나 둘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적어도 지난 두세대 남짓의 시간을 거치며 도시를 지배해온 논리는 압축성장의 현실경제와 지자체 단체장 선거와 연관된 정치공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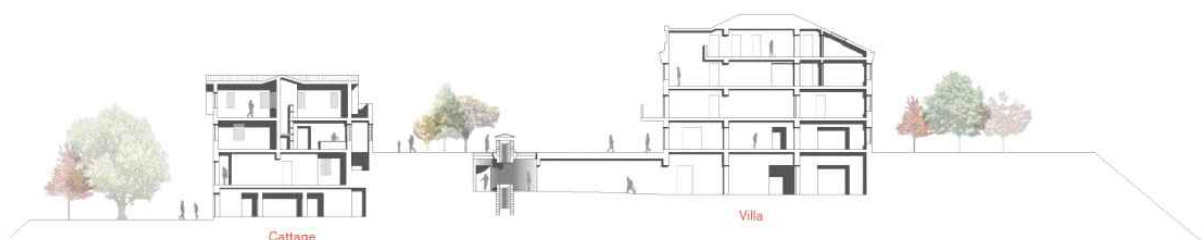


(좌) 지하철노선 동물그림, (우) 신화와 연관한 별자리 그림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신화의 내용과 연결했다. 맑은 날의 밤하늘은 삶과 죽음, 사랑과 증오, 전쟁과 평화 등 신들과 인간들의 어우러짐으로 구성된 다양한 드라마를 들려주는 낭송자(narrator)였다.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이 신화를 만들었고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이 별자리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들어왔다. 듣는 정도가 아니라 밤하늘을 배경으로 그려지는 스펙터클한 장면들을 보면서 그 신화에 감응하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했는지 모른다.

기억상실이 정신의 질병이듯 장소의 기억이 삭제된 도시생활은 온전하지 않다. 다행히 여기저기 퍼즐조각과도 같은 기억의 편린들이 남아서 도시공간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새로운 모자이크로 만들거나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내러티브로 재구성하는 단서가 된다. 하지만 도시공간의 장소성 회복이 단순히 과거의 재현이나 기억의 복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도시공간의 주인은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본 스튜디오에서는 역사도시 내 장소성의 해석과 의미론적 유추, 연상을 통한 건축적 개입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무한 변형이 가능한 퍼즐 위에서 건축과 도시를 다루는 기법을 익히게 한다. 역사적 상상력과 인간 가치에 대한 철학이 건축적 창의성을 통해 육화(肉化)될 때 장소성의 회복은 구현되고 우리시대의 내러티브로 재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Hill of Arts /2020년 YAC국제공모전 계획안 (전진영 + 최유정)